

2019년 7월 3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(044-201-2251), 사무관 정현주(2261) / 제공일: 7월 31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강릉 백합농가 대일본 수출 애로사항 보도는 사실과 다름 [노컷뉴스 7.3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]

- 정부는 검역강화 등 일본의 한국 농식품 수입규제 우려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, 비관세장벽 애로 상담센터 운영, 수출 통관지원, 점검회의 개최 등 대비 중에 있음
- 7월 31일 노컷뉴스 < “자식처럼 키운 백합 폐기 처분”...韓日 갈등에 백합 수출도 ‘막혀’ >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과 일본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오봉절 전후로 들어오던 일본의 백합 주문량이 강릉시 최씨 농가에는 전무해 산지 폐기한 상황



농림축산식품부 입장

-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해당 백합농가에 일본 주문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 - 해당 농가의 산지 폐기는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백합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수출가격도 인건비보다 낮게 책정되어 수급 조절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.
- 한일 관계 관련, 농산물 수출농가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